

종합

# 코트라·관광공사 'F1 띄우기'

## 10월 대회 앞두고 복합레저타운 외자유치·관광객 홍보 나서

### 도, '모터스포츠 도시' 개발 용역비 3억 확보

코트라(KOTRA)와 한국관광공사 등 정부 기관들이 10월 영암에서 열리는 포틀러원(F1) 국제자동차 경주 대회 띄우기에 나섰다. F1인근 복합레저타운 외자유치와 관광객 홍보에 나선 것이다.

지난달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'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' 개발 방향과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수익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. 또 잠재 투자희망기업 리스트 확보, 외자유치 홍보자료 등을 담은 사업에 뽐내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국비 2억2천500만원 등 총 3억원을 확보했다.

전남도는 용역을 통해 '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' 개발 방향과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수익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. 또 잠재 투자희망기업 리스트 확보, 외자유치 홍보자료 등을 담은 사업에 뽐내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국비 2억2천500만원 등 총 3억원을 확보했다.

역을 완료하고 10월부터 코트라와 공동으로 투자 유치활동을 펼칠 예정이다. 모터스포츠 복합레저도시에는 연평균 68만8천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F1 경주장 방문객의 소비수익과 해외 F1 경주장 주변의 배후단지 조성사례를 볼 때 국제 수준의 소규모

이나 특급호텔, 고급 주거단지, 레저스포츠 시설 등의 해외자본 유치가 기대되고 있다.

한국관광공사는 앞서 지난달 26일 전남도청에서 '포틀러원(F1)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를 활용한 발전 업무협약'을 체결하고 F1 대회의 성공 개최 및 전남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국내외 관광 수요 창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.

관광공사는 해외지사를 활용해 F1 대회 영암 개최를 적극 알리는 한편,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온·오프라인 홍보 및 패키지 관광상품 개발 방안 등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. /김지욱기자 dok2000@kwangju.co.kr



### 애니메이션·교육기능 갖춘 체험공간

## 광주 '에듀테인먼트' 오픈

### 영상복합문화관 2·3층

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지난달 25일 애니메이션과 테마, 교육기능이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에듀테인먼트 시설이 문을 열었다.

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문화콘텐츠 체험공간인 '웨스턴마카로니 테마파크'가 최근 개관한 광주 영상복합문화관 2·3층에 들어선 것. 이 테마파크는 '황금 열쇠를 찾아라'를 주제로 운영되며, 2층 '체험 존'과 3층 '모험 존'으로 구분된다. <사진>

'체험 존'은 우디의 과학실험실과 주니의 모래언덕, 용기의 다리, 서프라이즈 동물, 스키기의 인디언축제, 4차원의 미로 등 총 6개의 테마공간으로 구성돼 있다.

'모험 존'은 수력발전전을 체험할 수 있는 워터존과 모험의 사파리존, 자기동력을 이용한 탄광열차, 불분수, 정글의 길 등으로 꾸며졌다. 체험존과 모험존의 이용료는 각각 9천원이며, 이 두 시설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유이용권은 1만5천원이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웨스턴마카로니 테마파크가 문화콘텐츠의 즐거움과 창의력을 키우는 장으로 발전해 지역문화콘텐츠 산업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"며 "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월요일을 정기휴일로 하고,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할 예정"이라고 말했다.

이 테마파크는 지난해 7월 광주시와 (주)시은디자인이 투자협약을 맺은 뒤 (주)시은디자인이 민간자본을 들여 조성했다. 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

### 북부 노인건강타운 점검

북부노인건강타운은 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.

북부노인건강타운은 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.

<광주시 제공>

## 시민 4명 중 3명 "광주서 살고 싶다"

### 광발연 '삶의 질과 지역발전 실태' 조사

### 80% 이상 "시정 운영 잘하고 있다"

광주시민 4명 중 3명은 광주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으며, 10명 중 8명 이상은 광주시정에 대해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.

광주발전연구원(이하 광발연)은 '2030년 광주발전 비전과 전략 및 2단계 1등 광주 5개년계획 수립'을 위해 여론조사 전문가인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22~24일 지역민 2천 명을 대상으로 '삶의 질과 지역발전수요 실태 조사'를 벌인 결과 '광주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다'는 응답이 전체의 76.2%에 달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.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고 싶다는 응답은 23.8%였다.

'광주가 살기 좋은 곳인가'를 묻는 질문에서도 응답자 중 47.1%가 '만족', 41.4%가 '보통'이라고 응답하는 등 광주지역의 정주환경에 대해 높은 평가를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. 또 '전

반적인 생활의 만족도'에서는 37.7%가 '만족'한다고 답해 '불만'(12.1%)이라고 답한 비율의 3배를 넘어섰다. 51.2%는 '보통'이라고 응답했다. 광주의 시정운영에 대해서는 '보통'(54.5%), '만족'(32.9%) 등 87.4%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며, '불만'은 12.6%에 그쳤다.

광발연은 시정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비율이 높은 원인으로, 광주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중심도시 사업 진척, 정월대보름 100억 달러 수출 등 경제적인 발전 등 가시적인 효과 때문으로 분석했다.

시정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분야로는 문화수도 분야가 30.8%로 수위를 차지했으며, 환경복지(14.3%), 복지사회(14.1%), 산업생산(6.4%) 등이 그 뒤를 이었다.

응답자들은 또 앞으로 광주시가 가장 중점적으로 투자해야 할 분야로 산업생산(30.9%)을 꼽았으며, 복지사회(21.8%), 문화수도(10.6%), 환경복지(7.5%)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.

각 분야별로 가장 뛰어난 성과를 거둔 정책은 산업생산분야 '자동차·가전·광산업 육성', 문화수도분야 '예술 인프라 구축', 복지사회분야 '노인복지', 환경복지분야 '무등산 환경복원사업', 국제교류 및 관광분야 '2015년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' 등이 꼽혔다. 또 도시기반 확충분야에서는 '광역시도망 확충', 시정혁신분야에서는 '교육 및 인재 양성' 등이 우수 정책으로 평가됐다.

이번 조사는 전화면접방식으로 진행됐으며, 지역 별 인구비례에 따라 표본을 추출했다. 조사표본의 최대 허용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2.2%이며, 1만3천961명에게 조사를 시도해 2천명이 응답했다. 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## 쓸데없는 '도로 파헤치기' 없앤다

### 온라인시스템 구축 전기 등 굴착공사 최소화

광주시는 온라인시스템을 구축해 상·하수도, 전기, 통신, 가스, 송유관 등 지하매설물 공사 등으로 인한 잦은 도로굴착을 최소화하기로 했다.

광주시는 지난달 28일 "도로굴착에 대한 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해 단기간 내 중복 굴착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온라인으로 굴착 허가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2억 7천만원을 투자할 계획"이라고 밝혔다.

이에 따라 광주시는 최근 '사업 제

안서 제출 안내 공고'를 내고, 오는 18일까지 접수된 제안서를 검토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, 하반기 중에 시스템 구축을 마칠 예정이다.

광주시 관계자는 "도로굴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제대로 안 돼 굴착하고 복구한 지 얼마 안 된 곳을 또다시 굴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으며, 굴착허가과정도 상당히 복잡했다"며 "이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시스템 구축에 나서게 됐다"고 말했다.

/윤현석기자 chadol@kwangju.co.kr

## 모범음식점 선정 더 까다로워진다

### 소비자 참여 ... 전체 음식점 5% 이내로 제한

### 복지부 이달부터 시행

앞으로 모범음식점을 선정할 때 소비자도 반드시 참여하고 그 수도 전체 음식점의 5% 이내로 제한된다. 또 음식점에도 등급이 매겨질 전망이다.

보건복지가족부는 모범음식점 선정의 객관성을 높이고 낭비적인 음식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'모범음식점 지정 및 운영관리지침'을 마련, 1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.

복지부는 먼저 시·군·구 단위로 운영되는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소비자 3분의 1 이상 위원으로 참여토록 하고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모범음식점 지정, 관리, 좋은 식단 실천, 남은 음식 재사용

안하기 등을 심의토록 했다. 이와 함께 모범음식점 수를 일반음식점의 5% 이상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5%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다.

아울러 영업정지 등 처분으로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음식점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후 2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합량 미달의 음식점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지 않도록 했다.

모범음식점은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·군수·구청장에 의해 지정받을 수 있으며 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, 안내홍보책자 수록, 지정후 2년간 출입·검사 면제 등 혜택을 받게 된다. 작년말 현재 모범음식점은 전국적으로 2만6천여개소에 달한다. /연합뉴스

## 빛의 만평

- 김중두



국민 모두 뉘뻐고 있을때...

**조선대학교 · 동강대학 평생교육원 수강안내**

**관상! 단 한번의 수강으로 내 인생이 성공한다!**  
관상학: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사주명리학: 동강대학교

**관상이란?** 사람의 얼굴에는 성격과 인생행로가 그대로 나타나 있다. 그 사람의 지나온 과거 역정인지 미래의 지도인 것이다.

**성공하기 위해서는?** 성공과 실패는 인간 만능관계의 결과물이다. 손자병법에 "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전 백승이다" 라고 했다. 상대를 보고도 모른다면 즉 "낮 놓고 그자도 모른다" 면 성공은 기약하기 어렵다.

**동강대의 귀곡사주란?** 우주의 천시를 풀이한 귀곡사주! 사주풀이가 너무나도 잘 맞아서 귀신이 곡을 하고 도망갔다 하여 부처진 귀곡사주를 동강대학교에서 공개합니다.

대학교별	교육과정	기간 및 요일	강의시간	수강료	기타전화
조선대학교	관상학 2교과	32부터 매주 화요일(15주)	(주) 14-17시 (화) 19-22시	150,000원	230-7700-3
평생교육원	관상학 심화	35부터 매주 금요일(15주)	(화) 19-22시		
동강대학교	사주명리학 2교과	310부터 매주 수요일(15주)	(화) 18-21시	100,000원	520-2516
평생교육원	사주명리학 심화	311부터 매주 목요일(15주)	(화) 19-21시		

**등록안내** 동강대 정기등록 1.25 ~ 2.27 까지

**등록방법** 해당기관 직접방문이나 전화등록 후 금융기관 입금

**장학특전** 65세 이상 30% 감면 등 각 학교 홈페이지 참조

**교육전담강사** 소석 동양철학 연구원장 김경준 사주·관상 개인교습 실사!!!

문의: 각대학교 전화, 홈페이지 방문 강사 011-644-7232

**무등빌딩임대**

**최상의 업무지역,**  
**금융지역, 상업지역**  
**지하철역세권**  
**신형 주차시설 완비**  
**중앙공급식 냉·난방**  
**탁월한 무등산 조망권**

• 면적 330평 / 층 (분할임대 가능)  
• 용도: 사무실, 판매시설

**임대문의 062)222-0527**

**부동산매각공고**

◆ 대상부동산

위 치	여수시 중앙동
면 적	4,077㎡(1,233평)
용도지역	상업지역
이용현황	나대지
개발용도	의료시설, 휴양시설, 관광호텔..
도 로	4차선대로 접
매각가격	57억

◆ 특 장 점

-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개최지 인근.
- 바다조망(들산대교 등)이 가능한 해안가 도로변에 위치.
- 본 부지 주변 개발호재(엑스포)로 투자가치 및 의료시설 등 개발 최적 입지!!!
- 파격적인 急賣 價格!!!

문의 : 016-757-7700

**전통주 제조 연수생 모집**

**우리 전통주를 이제는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세요.**

**막걸리, 약주, 증류주, 과일주, 리큐류, 기락주 (창업도 가능함)**

● 모집기간  
조선대학교 : 3월 3일까지 접수  
호남대학교 : 3월 5일까지 접수

● 수업기간(4개월 15주)  
조선대학교 : 3월 8일 ~ 6월 말  
호남대학교 : 3월 10일 ~ 6월 말

**문의전화**  
☎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: 062) 230-7700~3  
☎ 호남대학교 평생교육원 : 062) 370-8211~3  
☎ 강사 : 010-4568-0700